

12-28-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로마서 8:1-18

말씀제목: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식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의 삶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의 육신에 죄를 선고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전가하여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때부터 육신을 따라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일의 결말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4-15)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롬 8:16)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은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며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격이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상속받으실 것인지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엡 1:20-22)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인도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냐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요 16:7,13,14)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은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런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날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롬 17-18)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누릴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있으니...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롬 8:19,21)
아멘! 할렐루야!